



## 윤리경영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일반적으로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드물다. 윤리경영은 윤리와 경영의 합성어이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가치관을 경영전략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가치관에 맞는 경영전략을 창조해내는 활동을 말한다.

### 사회적 책임과 사업은 상생의 개념

윤리경영을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윤리경영이 '윤리'가 애초 존재하던 '경영' 위에 새로이 덧붙여진 규범적 존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처음부터 '윤리'는 '경영'과 대립하는 그 무엇이라고 잘못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정의에서 수많은 오해가 생겨난다.

첫 번째 오해는 사회 책임과 선행, 그리고 윤리와 자선이 같은 뜻이라는 통념이다. 받은 것에 대해 돌려주는 행동인 '책임'과 선심 쓰듯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선' 사이에는 엄연히 큰 의미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책임경영은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일'로 여겨졌다.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인 미국 보스턴 칼리지의 브래드 구킨스 교수도 우리나라의 윤리경영 인식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그는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세미나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업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자선(Philanthropy)과 동의어라고 여겼다는 점이 가장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두 번째 오해는 자선사업에서의 '자선'과 '사업'이 서로 대립된다는 통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사업은 '사업'으로 조차 여겨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은 자선사업을 그저 돈을 여기저기 기부하는 아주 쉬운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만 해도 사회사업을 주로 펼치는 사회

적 기업이나 NGO에서 경영을 제대로 배운 톱 스쿨 출신의 MBA들이 자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근거도 없이 '자선'과 '사업'이 대립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러나 한국 기업인들의 의식은 여전히 오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기업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윤리경영

'자선과 사업', '윤리와 경영', '사회와 기업'처럼 언뜻 보기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사실은 대립하지 않는다. 이들의 가치와 효율성을 합치는 경영 이념이 바로 '윤리경영'이다. 윤리경영은 기업에 덧씌워진 '책임'이 아닌, 기업의 전략과 통합되어 경영효율성과 장기적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다.

윤리경영에 대해 많은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윤리경영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현장 직원들에게 윤리를 강요할 수 없지만,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고 나면 가장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으로 나타나곤 한다. 이런 발언은 '윤리경영은 임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이나, '윤리경영은 홍보'라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기업 가치관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역할과 파급효과를 저평가하면서 나온 또 다른 오해다.

이렇듯 윤리경영은 기업 가치관을 실행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 가치관은 기업이 그간 해온 모든 의사결정의 총체와 현재 경영자나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지를 더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윤리경영을 바로 이해하고, 일관되게 실행하게 하는 기준인 기업 가치관은 오랜 시간 윤리경영의 실행을 통해 형성된다. 기업의 가치관과 윤리경영,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상생의 개념인 것이다.